

민주당 '변화' 선택... 대선후보 이재명 선출

50.29% 득표율 과반 넘겨 결선투표 없이 본선 후보 확정
흙수저 소년공에서 경기지사·대권 도전 '성공신화' 이어가
"광주는 사회적 어머니" 남다른 애정... '원팀 구성' 과제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이 지사는 이날 마무리된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대권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로써 '흙수저 노동자 출신'인 이 지사는 '변호사-성남시장-경기지사'에 이어 대권 도전이라는 '성공신화'를 이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2·3·4면〉

하지만 이 지사는 50.29%의 근소한 과반 득표율을 보여 앞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무효 표 처리 논란'이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으며,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에게 큰 표차이로 패배한 점 등이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긴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전남 출신 대권 주자였던 이 전 대표는 2위에 머물며 대권 도전 행보를 당 경선에서 멈췄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지역 순회경선 투표에서 득표율 51.45%를 확보했고, 이 전 대표는 득표율 36.50%로 2위였다. 하지만 24만8000여명이 참여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 전 대표가 62.37%를 차지하며 이 지사(28.30%)를 압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득표율 59.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날 경선에서 이 전 대표는 30.5%로 2위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8.7%, 박용진 의원 1.4% 순이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39.14%)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누적 선거인단 수는 216만9511명이며, 이 중 145만9992명이 투표해 누적 투표율은



67.30%였다. 1위 이 지사는 최종 71만9905표를 얻었고, 2위 이낙연 후보는 56만0392표를 얻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선을 함께 치른 다른 주자들을 거명한 뒤 "동지들이 계셔서 민주당이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며 "4기 민주당 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한 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정쟁정치 중단하라,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소년공 생활로 원팔 장애를 입고, 가난한 환경을 딛고 검정고시를 시작으로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탄핵정국서 '사이다' 행보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고, 선거법 무죄확정으로 기사회생하면서 대권 주자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앞두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르게 됐다. 무엇보다도 경선 과정에 슬한 넉터티브 공격을 뚫고 '이재명은 합니다'는 구호를 내세워 '강한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대권 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라며 평소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이 지사의 대권 도전 과정에 호남 민심 결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민주 개혁세력 대통합 및 민주당 원팀

구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로서는 당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 이날도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신경전이 치열했다. 또 이 전 대표 일부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 전 얻은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에 대한 당내 불만도 갈등의 불씨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경기지역 대선후보 경선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오늘 광주서 첫 지역순회 합동토론회

본 경선 레이스 시작

현장 최고위 호남 민심 공략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관련기사 4면〉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윤

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은 11일 광주서 1차 합동 순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까지 본 경선 레이스를 치르게 된다. 결선투표 없이 일반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최종후보가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첫 순회 합동토론회를 열고 호남 민심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와,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해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회의에서는 대선 후보와 함께 지역 현안과 민심을 청취하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등 대선 승리를 위한 민생 행보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 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와 광주·전남·전

북 사·도당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끝낸 뒤 5·18민주광장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 1인 시위에도 나선다. 이 대표는 도보 1인 시위 도중 시민들을 만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 설명하고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광주·전남·전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직업계고 학생 꿈 짓밟는 현장실습 ▶6면

손흥민, 아사다 '지옥의 문' 뚫어라 ▶18면

한국의 산사를 가다 - 에필로그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오셀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